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저 자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출판사 : 중앙경제
발간일 : 2022.4.4.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이념법이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포퓰리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과정도 법치주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정부가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성마저 없다 보니 노동계, 시민단체의 거친 이념 과잉의 주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휘둘린 결과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은 입법 참사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안전분야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해설서만 보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정작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구령이 담 넘어가듯 비껴가고 있다. 법령의 불명확성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책임감이 실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과정과 실제적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만큼 독자 여러분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내용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계가 많은 법일수록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간파해야 이 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에 대한 정부 해설서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장의 안전을 그르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주요 쟁점에 대해 법조문을 안전원리와 접목해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에서는 이 법이 탄생한 배경과 공식적 제정 이유, 제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 법이 갖는 위상과 이 법이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다른 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제2장(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모티브가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배경·과정, 법의 상세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많은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제3장(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대응 방안)은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 부분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등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소송과정에서 위헌성을 다룰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4장(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한편,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여러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쟁점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한다.

제5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체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및 집행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다각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6장(중대재해처벌법의 회고와 전망)은 이 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언한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 주장 때부터 시행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필자가 일간지, 전문지 등에 투고한 칼럼과 인터뷰를 관련되는 부분마다 곳곳에 실고 있다. 이 법의 실제 입법배경(의도)과 문제점, 부작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우선적으로 이 책이 기업, 법집행기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전 원리를 왜곡시키는 일 없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법집행으로부터 수범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이 지배하기 쉬운 안전 분야에서, 특히 정치권과 행정부가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이 책이 안전보건관계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